

### 한국콜마, 中 광저우 공장 설립

#### 내년 말부터 화장품 생산 베이징 제2공장은 4월 완공

화장품 제조·개발생산(ODM) 전문기업 한국콜마가 중국 화장품 업체 밀집지역인 광저우에 3만 3000㎡(약 1만평) 규모의 화장품 공장을 짓는다.

이주형 한국콜마 기획관리본부 상무는 "2013년 광저우에 사무소를 열고 화장품 공장을 짓기 위한 준비 작업을 꾸준히 진행해왔다"며 "최근 준비 작업이 마무리되면서 이르면 다음달 광저우 포산(佛山)시와 토지 공급에 대한 최종 계약을 맺을 것"이라고 25일 말했다. 한국콜마는 2009년 중국 베이징에 첫 공장을 지었고 광저우공장은 두 번째 중국 공장이다.

이 상무는 "광저우 포산 부지 확보가 끝나면 곧바로 인허가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올 하반기 착공해 이르면 내년 하반기에 공장을 완공하고 기초·색조화장품을 생산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광저우공장 연면적은 3만3000㎡ 규모로 알려졌다. 단일 화장품 공장 부지로는 매우 큰 규모다.

한국콜마가 광저우공장을 신축하기로 결정한 것은 지난해 베이

징공장에서 매출 298억원을 기록하는 등 중국 내 매출이 빠르게 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콜마는 올해 콜마베이징에서만 연간 460억원 매출을 예상하고 있다.

한국콜마는 광저우공장 신축에 앞서 오는 4월 콜마베이징 제2공장도 완공한다. 이 상무는 "콜마베이징 2공장이 완공되면 베이징 1·2공장을 합쳐 연간 1억4000만개의 기초·색조화장품을 생산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간 1억4000만개는 중국에서 현재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의 5배 규모다.

운동한 한국콜마 회장은 "지난해 6월 세종시에 아시아 최대 규모의 화장품·제약 공장을 완공한 것에 발맞춰 이제 중국 시장 공략을 본격화하기 위한 글로벌 프로젝트의 일환"이라고 말했다. 한국콜마는 지난해 세종시 전의면 관정리 전의산업단지(3만9522㎡)에 338억원을 투입, 지하 1층~지상 3층, 건물면적 1만7419㎡ 규모의 화장품 제조공장을 지었다.

한국콜마는 중국 베이징·상하이·광저우·선양 등 네 곳에 있는 영업점을 올해 24곳으로 확장하는 방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이주형 기자 rainbow@hankyung.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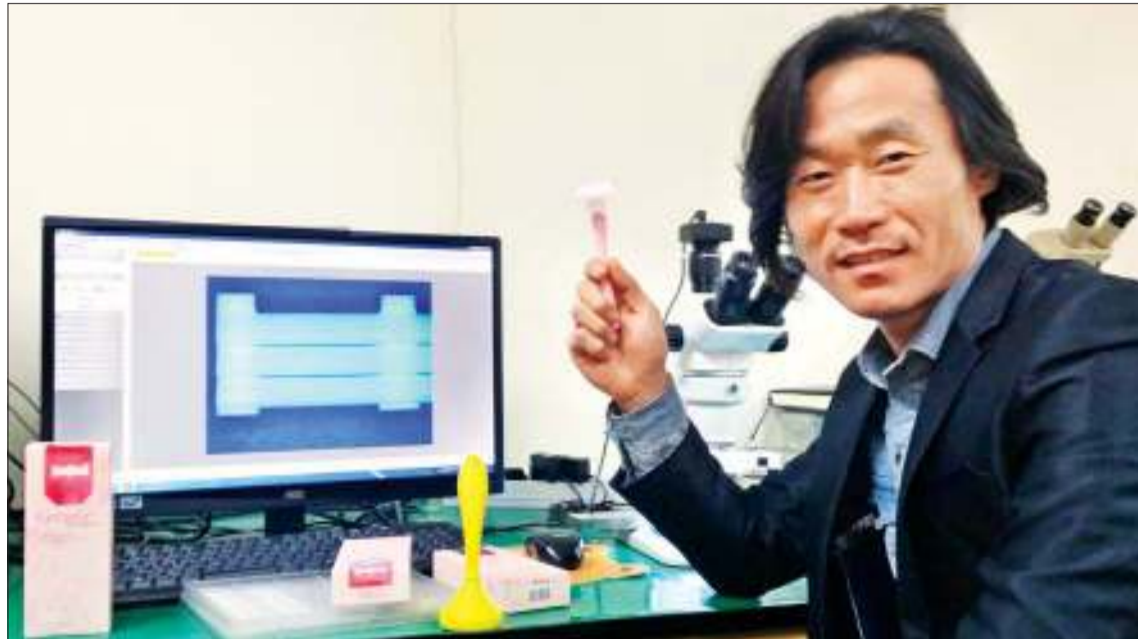
인피노의 세라믹 면도기 세레이저

## 베일 걱정 없는 면도날 ... 세라믹으로 女心 잡았다

은행원이던 유형석 씨는 면도할 때마다 불만이였다. 면도날 하면 베이고, 피부 트러블이 생겼기 때문이다. 면도날을 세것으로 바뀌도 마찬가지였다. 그는 2009년 어느날 반도체 장비 및 부품 관련 사업을 하는 동생에게 한마디 했다. "교세라가 부엌칼을 세라믹으로 만든다고 하던데 세라믹으로 면도날을 만들어보면 어떨까." 은행을 오래 다닌 생각이 없었던 그는 이 말과 함께 "돈을 대겠다"며 사업을 함께 하기로 제안했다. 동생이 받아들였다.

◆세라믹 장점을 면도기에 인피노는 이후 5년간 연구개발을 거쳐 국내에서 처음으로 여성용 세라믹 면도기를 개발했다. '세레이저' (사진) 브랜드로 지난해 판매를 시작했다. 지금까지 3000개 정도 팔렸다.

유형석 사장은 "은갖 종류의 면도기가 나왔지만 면도날은 모두 금속으로 된 제품이었다"며 "금속의 산화를 막기 위해 사용한 니켈 크롬



유형석 인피노 사장이 경기 구리시 별말로에 있는 공장에서 세레이저 면도기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김용준 기자

질레트도 실패한 세라믹 반도체 제조기술로 성공 해외물 통해 유럽시장 공략



수은이 각종 부작용을 일으켰다"고 말했다. 금속 면도날 제작에 쓰이는 합금제인 니켈 크롬 등으로 인해 면도한 부위가 화끈거리거나 붉어지는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반면 세라믹은 녹이 슬지 않아 합금 성분을 쓸 필요가 없다. 유 사장은 "금속 면도날은 말 그대로 날이 털을 깎지만 세라믹은 얇게 깎인 면으로 제모를 하기 때문에 따갑거나 가렵지 않고 베일 위험도 적다"고 강조했다.

◆제품개발에 30억 투자 인피노는 세레이저 개발에 30억원 가량을 투자했다. 유 사장은 "세계

1위 세라믹 소재회사인 교세라와 질레트 등도 세라믹을 소재로 면도날을 만들려고 했으나 실패한 것으로 안다"며 "우리는 반도체 검사장비 제조기술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인피노는 처음에 세라믹 날을 만들어 프레임에 끼우려 했다. 강도는 금속보다 높지만 쉽게 부러지고 평형을 유지하기가 어려웠다. 유 사장은 퇴직금까지 털어넣은 사업이 망가지기 직전에 모험을 시도했다. 날을 하나씩 만들어 끼우지 말고 면도기 머리 부분을 통째로 세라믹으로 만들면 어떻겠느냐고 제안했다.

인피노는 교세라로부터 면도기 손잡이를 제외한 부분을 통째로 납품받아 반도체 사업으로 쌓은 가공 노하우로 날처럼 얇게 만드는 데 성공했다. 유 사장은 "세라믹을 통째로 깎아 날과 프레임을 하나로 만들 수 있는 구조 특허가 경쟁력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개발 담당자는 "날을 만들어 끼우지 말고 세라믹을 통째로 가공하자는 발상의 전환이 제품 개발을 가능케 했다"고 말했다.

◆여성용 시장은 니치마켓 전기면도기를 제외한 습식면도기 세계 시장 규모는 13조원(유로모니터 조사) 정도다. 이 중 여성 면도기 시장은 약 3조원으로 전문가들은 추산하고 있다.

세레이저는 여성용만 나와 있다. 그는 "여성용 제품이지만 오픈마켓 구매자의 36%가량은 남성"이라며 "남성용 세라믹 면도기 제조는 산·학·연 협력 기술개발사업 과제에 개발 중"이라고 설명했다.

유 사장은 "제품을 내놓은 뒤 많은 외국 기업이 찾아왔지만 거래조건이 맞지 않아 제휴하지 않았다"며 "독자적으로 해외시장을 개척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국내 오픈마켓과 함께 아마존 이베이 등을 통해 해외에서도 판매하고 있으며 시장 규모가 큰 유럽을 우선 공략하겠다"고 덧붙였다.

구리=김용준기자 junyk@hankyung.com

How to invest & spend March 2015

# money

Big Story

## 2015 대한민국 베스트 PB센터

저금리와 저성장, 고령화로 퇴로조차 막혀 있는 금융투자 환경에서 최고의 금융 전문가와 세무·회계 전문가들이 포진된 PB센터는 자산을 지켜줄 든든한 조력자가 아닐 수 없다. 한경 머니는 43곳의 PB센터 임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은행·보험·증권 부문 최고의 PB센터를 선정, 자산관리의 내침반을 제시했다.

Special Theme

### 이 봄, 당신을 위한 힐링 포인트 All That Gardening

Trend Report

### 중년 남성들의 구매력, 해외 직구까지 뻗었다

Finance

### 한국에 들어오는 '소피아 부인'

Global Monitor

### 위험한 화약고 남중국해의 비밀

Second Act

### 평생 엔지니어였던 내가 광고판 주름잡기까지

유한양행 차기 사장에 이정희 부사장

상공인연합회 최승재

### 1년 새 매출 2배 된 토즈 김윤환 대표

## "창업·취업 희망자들의 모임공간 됐다"

인기 모바일 게임 애니팡을 만든 회사 이름은 선데이토즈다. 사무실도 없던 시절 이정웅 선데이토즈 대표가 매주 일요일(선데이) 아침마다 토즈라는 곳에서 창업 준비를 했고, 그인연으로 사명을 선데이토즈로 지었다.

토즈는 모임 공간을 빌려주는 사업을 국내에서 처음 시작한 업체다. 스티디 그룹과 각종 모임은 물론 기업 세미나, 강연, 워크숍, 프레젠테이션 공간을 빌려준다.

김윤환 토즈 대표(사진)는 "예전에는 창업 희망자들이 마땅한 공간을 찾지 못해 커피숍 등에 모여 준비를 했다"며 "사업 아이템을 갖고 고민하는 사람들은 토즈를 활용할 만하다"고 말했다. 선데이토즈는 물론 쿠팡 티켓몬스터 등도 토즈를 거쳐갔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김 대표는 대학을 졸업한 뒤 회계사 시험을 준비하다 2000년 토즈를 창업했다. 스티디 모

선데이토즈 등 벤처기업 토즈 사무실서 첫 출발 누적 이용객 900만명 교육·비즈니스 등 다양화

명이고 기업 회원사는 7800여 개다. 지난해 직원 170명이 매출 230억원을 냈다. 2013년(118억)의 두 배로 늘었다. 창업 붐과 취업난 덕을 봤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김 대표는 토즈를 모임센터, 스티디센터(독서실), 비즈니스센터 등 목적에 따라 세분화했다. 그는 "2년간 연구개발(R&D)을 통해 사람마다 공부가 잘되는 환경이 다르다는 걸 깨닫고 학습 공간을 적당한 소음이 있는 곳, 도서관같이 공개된 장소 등 일곱 가지로 다양화했다"고 설명했다. 스티디센터 요즘은 일반 독서실보다 10% 비싼 수준이다.

토즈는 해외 진출을 준비 중이다. 중국 일본 등 아시아 지역과 미국, 유럽을 공략할 계획이다. 김 대표는 "베트남은 학생들이 집에서 공부하는 등 나라별 성향이 달라 각국에 맞는 공부 및 모임 공간으로 현지화하겠다"고 말했다.

김정은기자 likesmile@hankyung.com

### 유한양행 차기 사장에 이정희 부사장

유한양행은 25일 이사회를 열어 이정희 부사장(사진)을 차기 사장으로 내정했다. 이 사장 내정자는 다음달 20일 열리는 정기주주총회에서 김윤섭 사장 후임으로 선임 대표이사에 선임될 예정이다.

김 사장은 지난 6년간 유한양행을 이끌며 제약업계 최초로 연 매출 1조원을 달성하는 등 회사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1회에 한해서만 연임이 가능'한 회사 내규에 따라 물러나게 됐다.

김형호기자 chsan@hankyung.com

### 상공인연합회 최승재

한국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는 25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단독 출마한 최승재 현 공동 회장(사진)을 차기 회장으로 선출했다. 임기는 3년이다.

최 회장은 한국인터넷콘텐츠서비스협동조합 이사장을 맡고 있다. 법제처 국민법제관, 전국소상공인살리기운동본부 대표 등을 지냈다.

추가경기자 gychu@hankyung.com